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이 정 미* 이 양 희

성균관대학교 BK21 다원적문화역량 핵심인재양성사업단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소재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4, 5, 6학년 아동 총 889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남아가 464명 여아가 425명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한 분석결과, 아동이 부모간의 갈등이 적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강하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유아기 혹은 학령기 초기의 아동들과는 달리,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영향력 보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 높은 만족감과 안녕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별 및 성별 모형분석 결과, 사회적 지지 변인은 모든 집단에서 아동의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부모관련 변인인 부모간의 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은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

주요어 :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부모 간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심리학은 부정적인 용어
로 점철(點綴)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eligman, 2000). 병리(pathology)의 부재가 곧 안
녕감(sense of well-being)을 나타내는 긍정적 지표
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이는 심리학의 뿌리가
건강과 질병에 관한 의학적 모델에 근거하고 있기

*본 연구는 2006년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이며,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KRF)의 신진연구장려금지원(과제번호 C00045)이 있었음.

*교신저자: 이정미, E-mail: jamiefeb@hanmail.net

때문이었다(Greenspoon & Saklofske, 2001). 최근 심리학이 단지 병리, 약점, 결함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강점과 미덕(美德)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연구자들의 자각이 일고 있다(Frisch, 2000; Keyes, 1998, 2005). 2000년 *American Psychologist*의 제호(題號)에서 Seligman과 Csikszentmihalyi는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라는 제목으로, 상담과 치료는 망가진 것을 고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길러내는 것이며, 심리학은 의학의 한 하위분야가 아니라, 일, 교육, 통찰, 사랑, 성장, 놀이에 관한 훨씬 커다란 분야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제 심리학은 삶의 부정적이고 모자란 측면들을 평가·진단·치료하는 것에 몰두하던 종래의 태도를 떨치고, 인간 내면의 긍정적인 자질(quality)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그 학문적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심리학의 새로운 도전은 긍정 심리학이라는 기치(旗幟) 아래 Seligman, Csikszentmihalyi, Lopez, Diener, Ryff, Masten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21세기 들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사회학, 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정신의학 분야에서 이 같은 움직임들이 서서히 일고 있다(이정미, 이양희, 2005). 이러한 최근의 동향을 고려할 때, 긍정 심리학은 우리 아동학 분야에도 발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Keyes, Shmotkin과 Ryff(2002)에 의해 ‘개인 또는 사회적 단위의 삶의 질’로 정의되는 ‘well-being’은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안녕’, ‘복지’, ‘복지감’, ‘행복’, ‘건강’ 등의 용어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조금씩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Diener로 대표되는 ‘정서적 안녕(emotional well-being)’과 Ryff로 대표되는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이 구분 없이 혼용(混用)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

구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후속 연구들을 위해서 명확한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Veenhoven(1991)은 안녕을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개인-집단’ 차원과 ‘주관성-객관성’ 차원으로 분류한 바 있는데 사회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소득 및 생활환경 같은 ‘객관적’ 차원의 ‘사회경제적’ 지표(indicator)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심리학자들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주관적’ 안녕에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볼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객관적인 지표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행복을 연구하고자 하였다(Andrews & Withey, 1976).

서구에서 연구되기 시작했던 여러 심리학적 구인들이 그러하였듯이, ‘well-being’ 역시 국내에서 통일된 용어가 없고, 학자들마다 여러 다른 용어로 사용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집단적 차원의 객관적 지표로서의 안녕이 아니라, ‘주관적 차원’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정서적·심리적 안녕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지표로서의 안녕과 구분하여,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정서적·심리적 안녕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안녕감(安寧感)’을 사용하고자 한다.

심리학에서의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크게 ‘안녕감’이 곧 ‘행복(happiness)’을 의미한다고 보는 ‘쾌락주의적 안녕감(hedonic well-being)’과, 실현되었을 때 삶 속에서 긍정적 기능을 초래하는 ‘인간의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보는 ‘행복주의적 안녕감(eudaimonic well-being)’으로 나누어진다(Ryan & Deci, 2001). 전자(前者)는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로서 ‘정서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라면, 후자(後者)는 인간발달과 생(生)에 있어서의 실존적 도전과 관련되는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와 연

결된다 하겠다.

심리학분야에서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두 갈래로 나뉘어 별개로 진화되어 오긴 했으나,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이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으로서 서로 구분되면서도 또한 상호 관련이 있다는 점에 최근 연구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Keyes et al., 2002; McGregor & Little, 1998, Ryff & Keyes, 1995). 이렇듯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연구자들이 서로 대립하던 종전의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상호보완해가는 통합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Keyes (2005)가 언급한 바 있듯이, 인간은 성장하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사회에 보다 기여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최근의 새로운 시도들과 연구결과들은 정서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 어느 하나만으로는 인간의 안녕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의 안녕감에 관한 모형을 수립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도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통합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임상 및 발달심리 이론과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안녕 및 적응적 발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꼽히고 있는 변인은 역시 부모관련 변인이다. 많은 연구들이 부모간의 갈등, 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자녀 관계 및 애착관계에서 아동기 발달과 적응, 그리고 안녕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부모간의 갈등(inter-parental conflict)’이 아동문제의 주된 원인이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Vandewater & Lansford, 1998). 부모간의 갈등은 아동의 공격성(Grych, Seid, & Fincham, 1992; Holden & Ritchie, 1991),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Emery & O’Leary,

1984; Peterson & Zill, 1986), 불안 및 위축(Grych et al., 1992; Holden & Richie, 1991) 등의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Emery & O’Leary, 1984), 인지적 유능성(Long, Forehand, Fauber, & Brody, 1987), 학업성취도(Westerman & La Luz, 1995)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간의 갈등이 심한 일반가정 아동의 적응 및 안녕이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보다 더 낮다는 것 또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Mechanic & Hansell, 1989; Webster-Stratton, 1989).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뿐 아니라,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Cummings, Davies, & Campbell, 2001). Belsky (1981)는 부모간의 갈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부모간의 갈등과 아동의 부적응을 매개하는 통제적 양육행동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그는 부부갈등으로 무기력해지고 지친 어머니가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되면, 아동의 활동은 감소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Dadds와 Powell(1991) 역시 갈등적인 부부관계가 일관성 없는 양육방식에 의해 매개되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매개경로의 효과는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Jouriles, Murphy, & O’Leary, 1989)에서는 지지되었지만,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Jenkin & Smith, 1991)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과 통제적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적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Fincham, Grych, & Osborne, 1994)에서는, 남녀 모두 내면화 부적응은 직·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외현화 부적응은 여아의 경우 간접 경로만 유의하고 남아의 경우는 직·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이든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한 간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이든, 대부분의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부모간의 갈등척도는 부모가 평정하는 부모보고 방식의 질문지였다. 그러나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가 보고하는 갈등 보다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 갈등이 더욱 중요한 예측변인이라는 연구결과(Vanderwater & Lansford, 1998)가 보고되면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 갈등이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즉 성인에 의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현상 보다 아동의 주관적 지각이 보다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권영옥, 이정덕, 1997). 따라서 부모 사이의 갈등상황에 노출됨으로써 아동이 받게 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부모간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평가를 측정해야 옳을 것이다.

아동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부모 관련 변인은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이다. 양육행동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황영은, 2005).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발달 시기별로 보면, 영·유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이 주요 변인이라면, 아동기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주요 변인이라 볼 수 있다.

Shaefer(1965)가 양육행동을 온정성(warmth) 차원과 통제(control)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안한 이래로, 이 두 차원은 양육행동에 관한 후속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었다(Armentrout & Burger, 1972;

Kawash & Clewes, 1987; Rapee, 1997). 최근의 연구들은 양육행동의 구체적인 하위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양육행동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원을 ‘온정성’과 ‘통제’로 보는 관점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부모의 애정은 아동으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을 탐색하도록 하는 사회적, 정서적 원천이 되며, 이를 기초로 하는 안정적인 감정과 신뢰감의 발달과 연관된다(Bowlby, 1969). 경험적 연구에서도, 부모의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행동과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이며(김지신, 1996; 손승희, 이은혜, 2004), 아동의 자기 효능감 및 성취감에 대한 주요 예측변인임이 밝혀졌다(Ingoldsby, Schvaneveldt, Supple, & Bush, 2003). 즉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수용하고 통제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성취감을 예언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정서적 상태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은 아동발달 전반에 걸쳐 효력을 갖는다(Shaffer, 2000).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우울, 불안,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파괴적 행동과 같은 부적응 및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김원경, 권희경, 전제아, 2006; 도현심 등, 2005;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 2006; 정문자, 전연진, 2005; 정미경, 김영희, 2003). 이들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 및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중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들고 있다. 부모의 거부, 처벌, 강압적 명령, 무관심,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문제와 가장 강력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과

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친사회성 및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힌 연구(김지신, 1996; 손승희, 이은혜, 2004;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 2001)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사회성은 어머니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권위주의적 통제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김지신, 1996), 어머니가 자녀에게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수용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며,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녀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동의 친사회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손승희, 이은혜, 2004).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바람직한 사회·정서적 행동을 의미하는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왔다(민하영, 권기남, 2004; 옥경희 등, 2001). 이들 연구결과 역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학령기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한 아동의 변인이 무엇 이든 간에, 그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제 부모의 객관적인 양육행동이 어떠한가 보다는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떠한 지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Parker, 1983). 따라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아동의 안녕감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서는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행동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인지 이론에서 제안하듯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 및 표상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더 의미를 지닐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문경주, 오경

자, 2002).

아동의 안녕 및 적응에 중요한 변인으로 꼽히고 있는 또 다른 변인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이다. 사회적 지지란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적 도움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해줌으로써 건강한 발달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아동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인일 것이다. 유아기 동안에는 가정이 주된 환경이었지만,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학교입학과 더불어 교사와 또래 등이 아동의 생활에서 중요한 타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은 점차 확대된다고 하겠다(Feiring & Lewis, 1989).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가정 다음으로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 되며, 특히 교사는 아동의 지적 성숙은 물론, 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교사는 아동이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으로서, 아동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이 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을 형성하게 된다(한유진, 최나야, 2004). 이처럼 아동의 사회적 환경은 성인과는 달리, 학교에 국한되어 있고 비교적 제한된 관계망을 가지므로, 아동의 삶에 있어 교사는 결코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일 것이다.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손꼽히는 또 다른 사회적 지지원은 또래이다. 유아기에 비교적 약하고 일시적이던 또래관계는 아동기에 접어들어 상호작용이 급증하고 긴밀해지면서 친구관계로 발전해간다. 그리고 아동은 친구관계를 통해서 타인과 상호 작용하는 방법, 사회적 기술, 적응능력 등을 배우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아동기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친구관계는 미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정신건강, 행동문제 등의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Hartup, 1993). 사회적 지지 중에서도 또래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능감을 높여주는 변인으로 여러 연구들(Dubow, Tisak, Causey, Hryshko, & Reid, 1991; Harter, 1988)에서 입증된 바 있으며, 국내연구에서도 또래지지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윤정진, 정옥분, 1997).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역시 아동의 평가 보다는 부모나 교사가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이다(Wertlieb, Weigel, & Feldstein, 1987). 그리하여 아동이 스스로 보고하는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Dubow & Ullman, 1989). 사회적 지지가 얼마나 풍부하게 주어지고 있느냐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지지받고 있다는 주관적 지각이 개인의 적응과정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보다는 지지받고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인식되었다(한유진, 최나야, 2004).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이 적응 및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고화숙(1999)의 연구에서 또래지지는 아동의 자아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교사 지지는 아동의 자아효능감 및 내재적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연희, 박경자(2001)와 김애경(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돈규와 성옥련(1998), 그리고 민미희, 이순형, 이옥경(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간의 갈등이 심한 가정일수록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문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안녕감 관련 주요변인으로 가족맥락(가정)에서 부모간의 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맥락(학교)에서 사회적 지지를 선정하였다. 이들 변인들은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에서 그 동안 많이 다루어져 온 변인들이기는 하나, 대다수가 아동의 부적응, 병리, 내·외면화 행동문제 등의 부정적 측면들과의 관계를 다루어온 것이 사실이다. 긍정심리학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듯이 병리의 부재가 곧 안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해 아동 스스로 내리는 판단과 지각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부모나 교사가 보고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실제 아동의 지각에 대한 근거한 분석은 최근에야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자기보고가 가능한 연령인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아동의 안녕감(安寧感)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아동의 안녕감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2.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아동의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및 아동의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는 아동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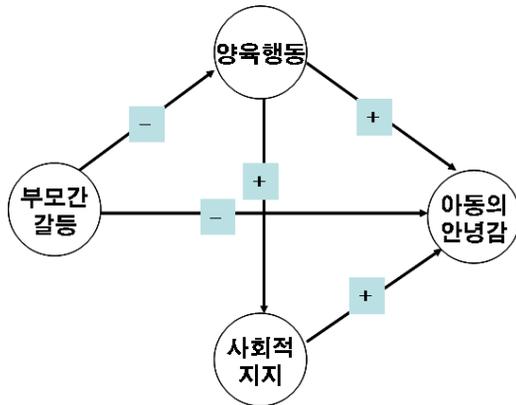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이 같은 연구문제에 따라, 아동의 안녕감 및 관련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은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공립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4, 5, 6학년 남녀 학생 889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10.68세, 표준편차는 .91이었다. 표1에 제시하였듯이, 남아가 전체의 52.2% (464명)로 47.8%(425명)인 여아보다 약간 더 많았다. 학년으로는 4학년이 33.2% (295명), 5학년이 33.1%(294명), 6학년이 33.7%(300명)로서 각 학년이 고르게 참여하였다.

표 1. 연구대상

변 인	빈도(명)	백분율(%)	
연령	9세	84	9.4
	10세	305	34.3
	11세	309	34.8
	12세	191	21.5
학년	4학년	295	33.2
	5학년	294	33.1
	6학년	300	33.7
성별	남 아	464	52.2
	여 아	425	47.8
계	889	100	

측정도구

1) 부모 간 갈등 척도

Grych 등(1992)이 개발한 아동용 부모간 갈등척도(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의 하위척도 가운데 '갈등의 속성' 차원에 해당하는 23개 문항만을 선별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이 평정할 수 있도록 번안·수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CPIC의 다른 두 차원인 '자기비난' 차원과 '위협' 차원은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동이 느끼는 반응으로서의 정서적 경험에 관한 내용이어서, 부모 간 갈등을 '부모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한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문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간의 갈등 수준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 323명을 대상으로 한 권영옥, 이정덕(1997)의 선행연구에서 3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각 요인별 척도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63-.81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예비연

구(이정미, 이양희, 2007)에서도 마찬가지로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23개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93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Parker(1979)의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지(Parental Bonding Inventory; PBI)를 사용하였다. PBI는 성인을 대상으로 회고적 자기보고를 통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을 평가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성인으로 하여금 16세까지의 기억을 토대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각각 25문항씩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제작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Parker(1979)의 PBI 25문항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이 평정할 수 있도록 번안·수정하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선정한 만큼 어머니에 대해서만 응답토록 하였다.

각 문항은 평소 어머니가 어떻게 대해주는지를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만 21-29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송지영(1992)의 연구에서 2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전체 .87이었다. 예비연구(이정미, 이양희, 2007)에서도 역시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16개 문항 전체의 내적 일치도는 .88이었다.

3) 사회적 지지 척도

아동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 인정, 관심 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Dubow와 Ulman(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사

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총 31개 문항으로 가족, 또래, 교사지지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교사지지와 또래지지의 합’으로 조작적 정의하였으므로, 가족지지에 해당하는 11개 문항은 제외하고, 또래지지와 교사지지에 해당하는 20개 문항만을 선별하여,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이 평정할 수 있도록 번안·수정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친구와 선생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미현, 유안진(1996)의 선행연구에서는 척도의 전체 문항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계수)가 .88로 보고된 바 있다. 예비연구(이정미, 이양희, 2007)에서 분석한 결과, 19개 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91이었다.

4) 안녕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Keyes(2005)의 안녕감 척도(twelve well-being items)를 사용하였다. 이는 12-18세 아동의 정서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그리고 사회적 안녕감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도구이다. 모두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한 달 동안 각 문항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아동으로 하여금 ‘전혀 느끼지 못했다’의 1점에서 ‘매일같이 느꼈다’의 6점에 이르는 6점 리커트 응답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비연구(이정미, 이양희, 2007)에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안녕감’ 요인의 문항변별도 및 요인부하값이 매우 낮게 나타나 만 9-11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아동에게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

한 문항들은 제외하고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만으로 척도를 구성하게 되었다. 각 문항은 지난 한 달 동안 아동이 문항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각 요인별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예비연구의 분석 결과, 최종 7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계수)는 .76이었다.

이상의 척도들로 구성된 측정문항들에 대한 정보는 <표 2>와 같다.

연구절차

문헌조사를 통해 제작된 문항들을 먼저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안하고, 영어와 국어 모두에 능통한 전공자 1인이 이를 다시 역 번역한 후, 원본과 역 번역본을 전문가와 더불어 검토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초안을 제작하였다. 이는 외국척도를 사용할 때 단순한 번역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한 후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함께 살펴보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한 손원숙(2003), 그리고 김아영과 임은영(2003)의 견해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작성된 설문 초안에 대해 다시 초등학교 4-6학년 담임교사 4인과 토의를 하였으며, 우리나라 아동에 맞게 문항 다듬기 과정을 거쳐 예비조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도움을 얻어 대상아동의 읽기 이해도 수준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완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의 대상 중 하한연령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들의 반응에 기초하여,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절한지,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표현이 모호한 문항은 없었는지 등 문항에 대한 아동의 이해도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와 더불어 문항들을 다시 수정하여 최종적인 본 조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시 25개 구(區) 중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에 있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표집될 수 있도록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중구, 관악구, 성동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등 9개 구(區)를 선정한 다음, 이들 9개 구(區)에서 각 1개 교(校)씩 편의표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각 학교별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자가 교실에서 직접 설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치를 구하였고, AMOS 5.0 Program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표 2. 각 변인별 측정문항에 관한 정보

구성개념	문항 수	신뢰도*	문항 변별도 평균	평균	표준 편차
갈등의 빈도	9	.857	.584	1.956	.580
갈등의 지속성	8	.828	.560	1.592	.488
갈등의 강도	4	.804	.620	1.809	.680
온정성	11	.873	.582	3.382	.490
자율성존중	5	.671	.428	2.956	.523
또래지지	15	.921	.638	3.161	.523
교사지지	4	.832	.661	2.992	.652
정서적 안녕감	3	.769	.603	2.666	.655
심리적 안녕감	4	.628	.408	2.440	.544

* Cronbach's α 계수

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본 연구와 같이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을 때 매우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개념측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측정모형 분석과, 인과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이론모형 분석의 이 단계를 걸쳐 실시하였다. 이는 측정모형을 검토한 후 이론모형을 검토해야 한다는, Anderson과 Gerbing(1988)의 이 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따른 것이다.

결 과

이론변수간 상관관계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의 측정변수들은 척도의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룰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이순목, 1990), 모수 추정방식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을 이용하였다. 측정모형

표 3. 측정모형의 이론변수간 상관행렬

이론변수	AMOS 추정치			
	부모 간 갈등	양육 행동	사회적 지지	안녕감
부모 간 갈등	1.000			
어머니의 양육행동	-.522	1.000		
사회적 지지	-.459	.709	1.000	
아동의 안녕감	-.414	.594	.698	1.000
평균	1.786	3.276	3.118	2.609
표준편차	.518	.453	.477	.566

의 이론변수들 간 상관과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간의 갈등은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과,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안녕감(+)과 기대되는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요인들 간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단위들 간의 판별타당도는 상관계수로 판단할 수 있다는 Anderson과 Gerbing(1988)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요인 간 상관계수들이 .4 -.7 사이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의 이론변수들 간에 적절한 판별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의 검증

먼저 각 이론변수를 측정하는 하위 측정변수들이 적절하게 이론변수를 측정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chi^2(df=21)$ 값이

표 4. 측정모형의 경로계수와 T값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 값*	표준화 추정치
부모간갈등 → 빈도	1.00	-	-	.888
부모간갈등 → 지속성	.780	.028	27.824 ***	.824
부모간갈등 → 강도	1.018	.039	25.888 ***	.771
양육행동 → 온정성	1.00	-	-	.888
양육행동 → 자율성존중	.743	.051	14.551 ***	.618
사회적지지 → 또래지지	1.00	-	-	.682
사회적지지 → 교사지지	.972	.083	11.769 ***	.533
안녕감 → 정서적안녕감	1.00	-	-	.711
안녕감 → 심리적안녕감	.742	.061	12.252 ***	.634

* 추정치(Estimates)를 표준오차(Standard Error)로 나눈 값으로서 이 값이 1.96 보다 크면 유의함. 이를 고정지수라고 하며, LISREL에서는 T값.

45.228, $\chi^2/df= 2.154$, GFI= .989, AGFI= .976, NFI=.983, TLI=.985, CFI= .991, RMSEA= .036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론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론모형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들은 $\chi^2= 48.542(df=22)$, $\chi^2/df= 2.206$, GFI =.988, AGFI= .975, NFI= .982, TLI= .984, CFI= .990, RMSEA= .037이 얻어졌다. 즉 이론적 바탕 위에 경로를 연결한 본 연구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합치도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χ^2 값은 모델 해석 시 크게 고려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가정한 모형에 포함된 경로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아동의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β_{31})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R.= .292). 따라서 이 경로를 고정하여 모형을 수정한 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모형의 χ^2 차이가 2.581(48.542-45.961)로서 df 가 1일 때 χ^2 분포에서 $p=.05$ 의 임계치인 3.84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두 모형 간 χ^2 차이 2.58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자유모수 하나(β_{31})를 고정하였으므로 수정모형은 자유도(df) 1을 얻어 더 간명해지면서, 카이제곱 차이검증 결과 유의할만한 합치도의 상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수정의 근거는 수량적 자료뿐 아니라 이론적 정당성도 고려한다는 견해(김계수, 2004; 노형진, 2005)와, 고정지수의 값이 작다고 그 특징수를 고정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이순목, 1990)를 쫓아, 본 연구에서는 수정모형이 보다 간명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이미 충분히 좋을 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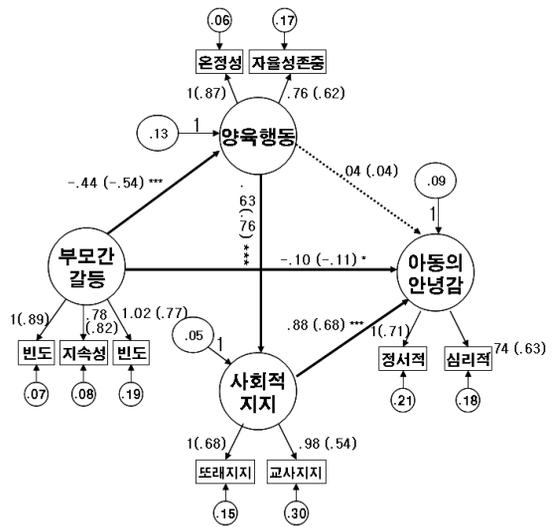


그림 2. 모형의 검증결과

아니라, 수정모형 보다는 연구모형이 무작위 자료 (random data)로서의 통계적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서, 연구자가 세운 사전적 가설(a priori hypothesis)이라는 통계학적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론모형의 검증결과 얻어진 추정치들은 다음 페이지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에 제시된 이론 모형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들 간의 추정치와 내생 변수들 간의 추정치의 방향을 살펴보면, 외생변수인 부모간의 갈등에서 내생변수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의 표준화 계수는 -.536으로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p<.001$), 아동의 안녕감으로의 표준화 계수는 -.108로서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p<.05$), 그 방향성과 설명력이 연구자의 가정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연구모형의 외생변수와 내생변수 간의 관계는 분석결과 그 방향성과 영향력에 대한 연구자의 가정이 모두 지지되었다.

한편, 내생변수들 간의 추정치의 방향을 살펴 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서 사회적 지지로의 표

표 5. 이론모형의 경로계수와 T값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C.R.	표준화 추정치
부모간의 갈등(ξ_1)→ 어머니의 양육행동(η_1)	-.444	.031	-14.179***	-.536
부모간의 갈등(ξ_1)→ 아동의 안녕감(η_3)	-.097	.045	-2.142*	-.108
어머니의 양육행동(η_1)→ 사회적 지지(η_2)	.632	.047	13.315***	.760
어머니의 양육행동(η_1)→ 아동의 안녕감(η_3)	.040	.137	.292	.037
사회적 지지(η_2) → 아동의 안녕감(η_3)	.883	.190	4.656***	.675

표 6. 효과의 분해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부모간의 갈등 → 어머니의 양육행동	-.536	-	-.536
부모간의 갈등 → 아동의 안녕감	-.108	-.295	-.402
어머니의 양육행동 → 사회적 지지	.760	-	.760
어머니의 양육행동 → 아동의 안녕감	.037	.513	.549
사회적 지지 → 아동의 안녕감	.675	-	.675

준화 계수는 .76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p < .001$), 아동의 안녕감으로의 표준화 계수는 .037로 나타나 유의확률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내생변수인 사회적 지지에서 안녕감으로의 표준화 계수는 .675로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 < .001$), 최종모형의 내생변수와 내생변수 간의 관계는 그 방향성과 설명력에 대한 연구자의 가정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끝으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밝혀진 이론변수들 간의 간접경로에 대한 분석을 위해 모형에 나타난 이론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그리고 총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으며, 모든 수치는 표준화 수치이다.

먼저,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부모간 갈등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간접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

의 안녕감’의 간접경로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경로의 직접효과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안녕감’ 경로의 직접효과와 곱으로 계산되어질 수 있다. 그 결과 $-.020(-.536 \times .037)$ 이 얻어져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안녕감’ 경로의 직접효과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판단된다. 둘째,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아동의 안녕감’의 간접경로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경로의 직접효과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경로의 직접효과,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행동→ 아동의 안녕감’ 경로의 직접효과들 간의 곱으로 계산되어진다. 그 결과 $-.275(-.536 \times .760 \times .675)$ 가 얻어졌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부모간의 갈등과 아동의 안녕감 간의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으로 매개되는 경로의 효과($-.020$)보다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둘 모두에 의해 매개되는 경로의 효과($-.275$)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간접경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지지→ 아동의 안녕감’의 간접경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지지’ 경로의 직접효과와 ‘사회적지지→ 아동의 안녕감’ 경로의 직접효과와 곱으로 계산되어진다. 그 결과 $.513(.760 \times .675)$ 이 얻어졌다. 이로부터 어머

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안녕감 간의 관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의한 직접경로의 효과(.037) 보다 사회적지지에 의해 매개되는 경로의 효과(.513)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모형검증

성별 및 학년별로 집단을 분리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 쪽의 <표 7>에 제시하였듯이, 모든 집단의 모형들이 좋은 합치도 기준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각 집단별 분석결과를 앞 선 최종모형 분석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1) 성별 모형검증

남아집단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지지 변인의 영향력은 최종모형 분석결과와 동일하게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C.R.= 3.815, $p<.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관련 변인 중 부모간의 갈등은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영향력(C.R.= -.951, $p>.05$)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C.R.= 2.151, $p<.05$)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최종모형 분석결과(그림 2 참조)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어, 여아집단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아집단의 모형 역시 최종모형 및 남아모형과 유사하게 사회적 지지 변인의 영향력(C.R.= 1.982, $p<.05$)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부모 간 갈등의 영향력(C.R.= -2.274, $p<.01$)은 유의한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C.R.= -.901, $p>.05$)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아모형은 최종모형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남아모형과 비교할 때는 부모관련 변인의 영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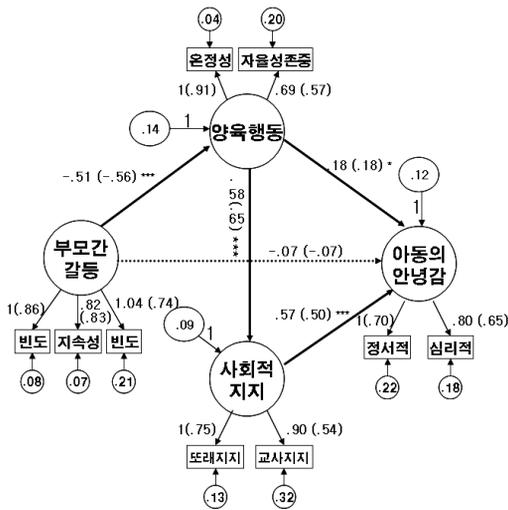


그림 3. 남아집단 모형의 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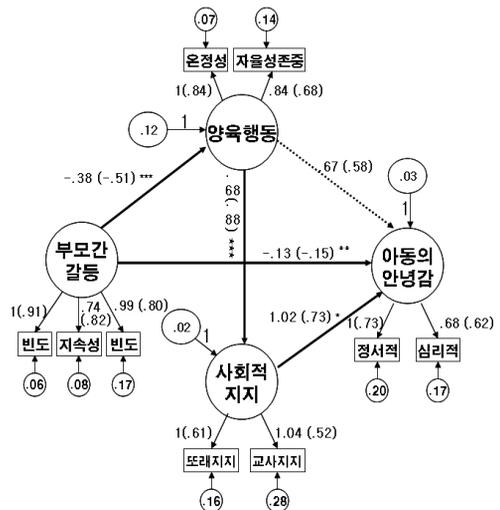


그림 4. 여아집단 모형의 검증결과

표 7. 각 집단별 모형의 전반적 합치도 지수들

모형	χ^2	GFI	AGFI	NFI	TLI	CFI	RMSEA	ECVI
남아집단 모형	40.440 (df=22)	.981	.961	.970	.977	.986	.043	.187
여아집단 모형	30.164 (df=22)	.985	.969	.979	.990	.994	.030	.180
4학년 모형	31.432 (df=22)	.977	.953	.968	.984	.990	.038	.263
5학년 모형	38.645 (df=22)	.972	.942	.958	.970	.981	.051	.289
6학년 모형	44.947 (df=22)	.969	.936	.949	.956	.973	.059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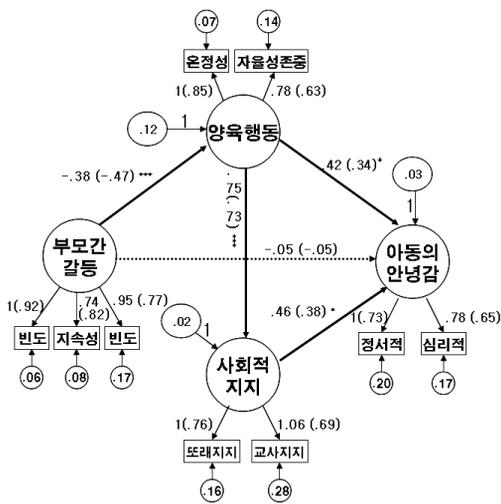


그림 5. 4학년모형의 검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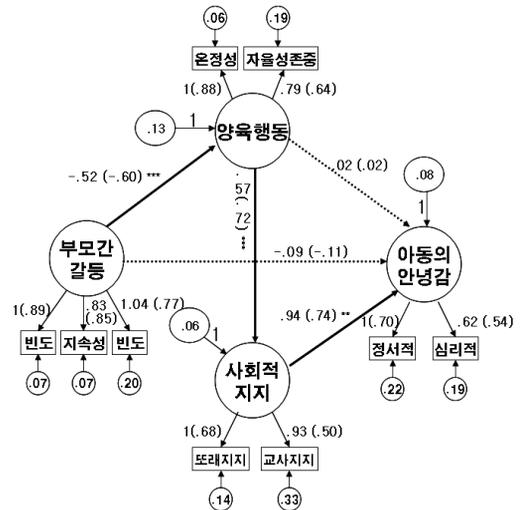


그림 6. 5학년모형의 검증결과

2) 학년별 모형검증

학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모형을 분석한 결과, 4학년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 변인의 영향력이 최종모형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유의한 영향력(C.R.=2.556, $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관련 변인 중 부모간의 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간의 갈등은 영향력(C.R.=-.673, $p>.05$)이 유의하지 않은 반면,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C.R.=2.175, $p<.05$)

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 분석결과(그림 2 참조)와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4학년모형의 검증결과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5학년모형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6>에 제시하였다. 5학년 아동의 경우는 부모간 갈등의 영향(C.R.= -1.063, $p>.05$)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C.R.=.079, $p>.05$)을 모두 받지 않고, 사회적지지에 의해서만 유의한 영향(C.R.=2.825, $p<.01$)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은 물론 다른 모든 집단모형들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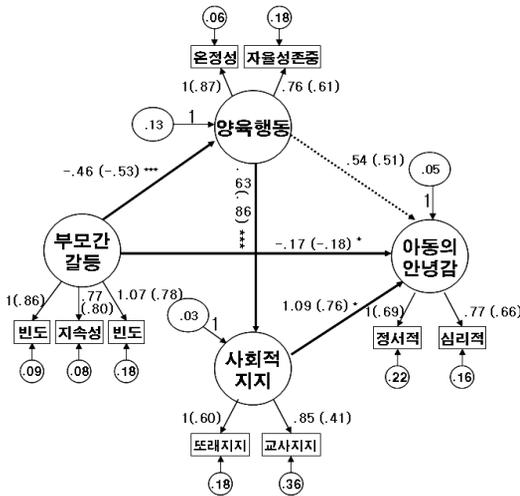


그림 7. 6학년모형의 검증결과

끝으로, 6학년모형의 분석결과 사회적 지지변인의 영향력(C.R.= 5.377, $p<.001$)과 부모 간 갈등의 영향력(C.R.= -2.091, $p<.05$)은 유의하였지만,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영향력(C.R.= .623, $p>.05$)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학년과 5학년 모형의 분석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며, 최종모형(그림 2 참조)과 여아모형(그림 4 참조)과는 동일한 결과이다. 6학년모형의 검증결과는 <그림 7>에 제시하였다.

논 의

전술(前述)한 연구문제에 비추어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문제 1에 대해서는 부모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그리고 아동의 안녕감 간에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적절한 상관이 있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지각하는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 지지, 안녕감의 수준 역시 낮게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사회적 지지와 안녕감의 수준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안녕감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본 연구의 최종모형이 좋은 적합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수인 TLI, CFI, RMSEA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TLI=.984, CFI=.990, 그리고 RMSEA=.037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TLI와 CFI는 .90이상이어야, RMSEA는 .08이하이어야 한다는 준거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문헌고찰을 토대로 개발된 구조모형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으로부터 수집된 경험적 자료와 잘 부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간의 갈등은 아동의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적응,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능력 및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들(Davis & Cummings, 1994; Emery, 1988; Grych & Fincham, 1990)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간 갈등 그 자체보다는 부모 간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보다 직접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Grych와 Fincham(1993)의 인지-맥락모형(cognitive-contextual framework)을 뒷받침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더불어,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의 아동 보다 부모 간 갈등이 심한 일반가정 아동의

부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한 선행연구 결과들 (Mechanic & Hansell, 1989; Peterson & Zill, 1986) 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부모 간 갈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 부모간의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적인 부모간의 관계가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의해 아동의 부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이민식, 1999; Belsky, 1981; Dadds & Powell, 1991; Jouriles et al., 1989)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지만,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정미경, 김영희, 2003; Jenkins & Smith, 1991)에서 이러한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관계가 갈등적인 가정의 아동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인해 증진되는 안녕감보다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안녕감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이 부모 간 갈등의 원인이 어머니라고 지각하는 경우, 어머니가 아동에게 온정적이고 반응적이며 또한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해준다 하더라도 아동의 안녕감은 낮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아동에게 아무리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부모 간 갈등의 골이 깊다면 아동의 안녕감은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부모간의 갈등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안녕감에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이 부모의 우울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부모의 우울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행동을 어렵게 만들어 그 결과로 아동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Ge, Lorenz, Conger, Elder, & Simons, 1994)의 결과를 고려할 때 수긍이 가는 결과이다. 또한, 친구 및 교사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양돈규, 임영식, 1998), 교사로부터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났던 연구결과들(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다양한 위험요인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완충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간의 갈등이 심한 가정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사회적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아동은 안녕감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자아존중감, 탄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들(김정희, 문혁준, 2004; 이숙, 최정미, 2003; Harrist, Pettit, Dodge, & Bates, 1994)과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그러나 학령기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및 행동 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김지현, 박경자, 2006; 이순형 등, 2006)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 그리고 문제해결력 간의 구조모형을 제시한 김원경 등(2006)의 연구에서 고학년 아동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변인(우울, 자기효능감,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직접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로서 그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인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연구(김원경 등, 2006)에서 양육행동 가운데 ‘온정적 양육행동’만이 ‘아동의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문제해결력’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으로 설정된 ‘온정성’과 ‘자율성 존중’ 척도 간의 상쇄효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어머니의 간섭을 아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통제로 보는 서구문화권과는 달리, 우리 문화권에서는 어머니의 간섭을 부정적 통제로 지각하기 보다는 자녀의 일에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여기는 현상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으로부터 얻은 경험적 자료에도 반영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는 발달기(developmental period)의 차이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시기는 청소년기 보다는 아동기, 아동기 보다는 유아기, 유아기 보다는 영아기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자아존중감 간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연구들(김정희, 문혁준, 2004; 손승희, 이은혜, 2004; Harrist et al., 1994; Mize & Pettit, 1997)의 대상이 학령기가 아니라 유아기 아동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은 발달적으로 후기 아동기에 해당하며,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영향이 이전 시기에 비해 확연히 줄어드는 시기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이 시기 아동의 안녕감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닐까 추론된다.

다섯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안녕감에 유의미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기 때 일차 양육자(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아동은 학령기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훨씬 확장된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며, 사회적 유능성에 있어서도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던 연구결과들(Bost, Vaughn, Washington, Cielinski, & Bradbard, 1998; DeMulder, Denham, Schmidt, & Mitchell, 2000)과 유사한 결과이다.

여섯째,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또래나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나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안녕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 학업적 유능성 등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연희·박경자, 2001; 이영자, 1994)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형의 적합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모든 집단모형이 좋은 적합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별 모형의 적합도가 TLI는 .956-.990 사이, CFI는 .973-.994 사이, RMSEA는 .030-.059 사이에 분포하여, 모든 집단별 모형이 만족스러운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이로써, 문헌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조모형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연령 및 성별을 불문하고 매우 안정적이며 적용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4학년과 5학년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6학년모형에서는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집단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여아집단 모형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 성차가 발견되었다. 아동의 부적응에 초점을 두었던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 간 갈등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다(정미경, 김영희, 2003; Cummings, Ballard, El-Sheikh, & Lake, 1991). 그러나 부적응이 아니라 아동의 안녕감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서는 부모간의 갈등이 모든 아동의 안녕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며, 남아보다는 여아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아동에게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높고 여아일수록 부모 간 갈등이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부정적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둘째, 부모간의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4학년 모형에서만 유의하고 5학년과 6학년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매개효과가 작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남아집단 모형에서만 유의하고 여아집단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아동의 학년과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은 부모 간 갈등이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간접경로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Jenkin & Smith, 1991; Jouriles et al., 1989)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 같은 결과로

부터 아동의 연령이 어리고 남아일수록 부모 간 갈등이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보호하고 완충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연령이 높고 여아일수록 이러한 완충효과는 약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부모간의 갈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집단모형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 간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이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시켜, 자녀에 대한 적절한 양육행동을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로 아동의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 결과(Ge et al., 1994)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에게 있어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위험요인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완충하는 요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4학년모형에서는 유의하였으나, 5학년과 6학년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저학년에서는 유의하였으나 고학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김원경 등, 2006; 이숙, 최정미, 2003).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집단 모형에서는 유의하였으나 여아집단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설명력이 남아집단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던 연구결과(이숙, 최정미, 2003)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아동의 연령이 어리고 남아일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라 안녕감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

령이 어린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안녕감도 높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안녕감도 낮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연령이 높은 여아의 안녕감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직접적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지지각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집단모형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유아기 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했던 아동은 학령기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훨씬 확장된 관계망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도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Bost et al., 1998; DeMulder et al., 2000).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효과를 매개하는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모든 집단의 모형에서 지지되었다. 즉 아동이 또래나 교사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안녕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래나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안녕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증진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며, 가족 외 맥락에서의 친밀감과 애정을 제공한다고 한 Parker, Rubin, Price, 그리고 DeRosier(1995)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보호요인이라고 한 Thompson, Flood, 그리고 Goodvin(2006)의 견해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는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아동의 안녕감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겠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맥락의 선행변수를 부모간의 갈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단순화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가정의 소득이나 가족 스트레스와 같은 외생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연구가 '아동이 지각하는' 각 변인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에, 아동이 보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 변수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나 형제자매 간 관계 등의 가족관련 변인들은 모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정의 소득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가족 외 변인과 가족 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행동, 형제자매 간의 관계 등의 가족관련 변인들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의 선행변수로 또래지거나 교사지 등 아동이 학교에서 받는 지지에만 국한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아동의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는 반드시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웃이나 친척, 종교 등의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까지 포함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그 원천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 지지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것을 고

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성격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아동의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면 좋을 것이다.

셋째, 아동의 안녕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학령기 아동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을 번안·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의 안녕감은 서구의 아동들이 경험하는 안녕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들의 정서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심리측정적으로 신뢰롭고 타당한 안녕감 척도가 개발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횡단적 연구이다. 광범위한 이론적 검토와 방법론적 엄밀성을 통하여 임의적 추정을 피하려 노력하였으나, 인과적인 관계에 대한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연구가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는 시간 차이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학년별로 모형을 구분하여 분석해본 결과, 아동이 성장·발달함에 따라 어머니의 영향력 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접촉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 높은 만족감과 안녕감을 느낀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의 안녕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한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검증된 구조모형이 후속연구에서 수집된 다른 표본들을 통해서도 그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화숙(1999).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8(1), 27-38.
- 권영옥, 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김계수(2004). AMOS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주)테이타솔루션.
- 김아영, 임은영(2003). 타문화권 척도 번안과정에서 적용되는 절차들 간의 효과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1), 89-113.
- 김애경(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 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연희, 박경자(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귀인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49-64.
- 김원경, 권희경, 전제아(2006). 부모양육행동, 아동의 우울 및 자기효능감과 아동의 문제해결력 간의 구조모델. *아동학회지*, 27(3), 67-79.
- 김정희, 문혁준(2004).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0), 23-38.
- 김지신(1996).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지현, 박경자(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

- 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노형진(2005). SPSS/Amos에 의한 사회조사분석-범주형 데이터 분석 및 공분산구조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 노현심, 김민정, 박보경, 황영은(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85-195.
- 문경주, 오경자(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민미희, 이순형, 이옥경(2005). 부모의 이혼여부 및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내면화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3(11), 109-125.
- 민하영, 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손승희, 이은혜(2004). 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4), 167-177.
- 손원숙(2003). 심리검사 번안에 대한 통합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57-80.
-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 (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979-991.
- 양돈규, 성옥련(1998).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1375-1393.
- 양돈규, 임영식(1998).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55-74.
- 옥경희, 김미혜, 천희영(2001). 저소득층 아동의 학업, 정서 및 사회성 발달: 부모보호와 자기 보호 비교. 아동학회지, 22(2), 91-111.
- 윤정진, 정옥분(1997).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8(2), 311-331.
- 이민식(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숙, 최정미(2003).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또래수용도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31-42.
- 이순목(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순형, 이옥경, 민미희(2006). 아동의 성별, 부모의 이혼 및 아동의 부모 양육행동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81-192.
- 이영자(1994).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미, 이양희(2005). 한국판 아동용 다면적 생활만족도검사(K-MSLSS)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2), 119-135.
- 이정미, 이양희(2007). 아동의 안녕감 측정모형의 타당화 연구.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22.
- 정문자, 전연진(2005). 아버지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모형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43(2), 41-55.
- 정미경,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한미현, 유안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한유진, 최나야(2004).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 및 생활만족도가 대인관계 상황 귀인양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1(3), 363-38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Y: Plenum.
- Armentrout, J. A., & Burger, G. K. (1972). Factor analyses of college students' recall of parental child-rearing behavio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21, 155-161.
- Belsky, J. (1981). Early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23.
- Bost K., Vaughn, B., Washington, W., Cielinski, K., & Bradbard, M. (1998). Social competence, social support, and attachment: Demarcation of construct domains, measurement, and paths of influence for preschool children attending Head Start. *Child Development*, 69, 192-218.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Basic Books.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 (1991). Resolution and child's responses to intra-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64-470.
- Cummings, E. M., Davies, P. T., & Campbell, S. B. (2001). Understanding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Brown University Child and Adolescent Behavior Letter*, 17(5), 1-4.
- Dadds, M. R., & Powell, M. B. (1991). The relationships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global adjustment to aggression, anxiety, and immaturity in aggressive and nonclin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553-567.
-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eMulder, E., Denham, S., Schmidt, M., & Mitchell, J. (2000). Q-sort assessment of attachment security during the preschool years: Links from home to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74-282.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Dubow, E. F., Tisak, J., Causey, D., Hryshko, A., & Reid, G. (1991).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of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 solving skill: Contribution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 583-599.
- Dubow, E. F., & Ullman, D. G. (1989). As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 Psychology*, 18(1), 52-64.
- Emery, R. E. (198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CA: Sage Publications.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 Feiring, C., & Lewis, M. (1989). The social networks of girls and boys from early through middle childhood.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 119-150). NY: Wiley.
- Fincham, F. D., Grych, J. H., & Osborne, L. M.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ment?: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Frisch, M. B. (2000). Improving mental and physical health care through quality of life therapy and assessment. In E. Diener & D. R. Rahtz (Eds.), *Advances in quality of life theory and research* (pp. 207-241).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ress.
- Ge, X., Lorenz, F. O., Conger, R. D., Elder, G. H., & Simons, R. L. (1994). Trajectories of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0(4), 467-483.
- Greenspoon, P. J., & Saklofske, D. H. (2001). Toward an integration of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patholog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 81-108.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Grych, J. H., & Fincham, F. 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 H., & Fincham, F. 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Harrist, A. W., Pettit, G. S., Dodge, K. A., & Bates, J. E. (1994). Dyadic synchrony in mother-child interaction: Relations with children's subsequent kindergarten adjustment. *Family Relations*, 43, 417-424.
- Harter, S. (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ey & J. E. Johnson(Eds.), *Integrative processe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pp. 45-78). NJ: Erlbaum Associates, Inc.
- Hartup, W. W. (1993). Adolescents and their friends. In B. Laursen (Eds.), *Close friendships in adolescence* (pp.3-22). SF: Jossey-Bass.
- Holden, G. W., & Ritchie, K. L. (1991). Linking extreme marital discord, child rearing, and child behavior problems: Evidence from battered women. *Child Development*, 62, 311-327.
- Ingoldsby, B., Schvaneveldt, P., Supple, A., &

- Bush, K.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in Chile and Ecuador. *Marriage & Family Review, 35*, 139-159.
- Jenkins, J. M., & Smith, M. A. (1991).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spects of a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793-810.
- Jouriles, E. N., Murphy, C. M., & O'Leary, K. D. (1989). Interspousal aggression, marital discord, and child proble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53-455.
- Kawash, G. F., & Clewes, J. L. (1987). A factor analysis of a short form of the CRPBI: Are children's perceptions of control and discipline multidimensional? *The Journal of Psychology, 122*, 57-67.
- Keyes, C. L. M.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 121-140.
- Keyes, C. L. M. (2005). The subjective well-being of America's youth: Toward a comprehensive assessment. *Adolescent and Family Health, 4*, 3-11.
- Keyes, C. L. M., Shmotkin, D., & Ryff, C. D.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6), 1007-1022.
-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 obser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 McGregor, I., & Little, B. R. (1998). Personal projects, happiness, and meaning: On doing well and being your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94-512.
- Mechanic, D., & Hansell, S. (1989). Divorce, family, conflict, and adolescent's well-be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0*, 105-116.
- Mize, J., & Pettit, G. S. (1997). Mothers' social coaching, mother-child relationship style, and children's peer competence: Is the medium the message? *Child Development, 68*, 291-311.
- Parker, G. (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4*, 138-147.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Sydney: Grune & Stratton.
- Parker, J. G., Rubin, K. H., Price, J. M., & DeRosier, M. E. (1995). 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and adjustment: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pp. 96-161). NY: Wiley.
- Peterson, J. L., & Zill, N. (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Rapee, R. M. (1997). The potential role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 47-67.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Seligman, M. E. P. (2000).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74-119).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haefer, E.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4th ed.). CA: Wodsworth/Tomson Learning.
- Thompson, R. A., Flood, M. F., & Goodvin, R. (2006). Social suppor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3 Risk, disorder, & adaptation* (2 ed. pp. 1-37). NJ: John Wiley & Sons.
- Vandewater, E. A. & Lansford, J. (1998).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well-being. *Family Relations, 47*(4), 323-330.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 Webster-Stratton, C. (1989). The relationship of marital support, conflict, and divorce to parent perceptions, behaviors, and childhood conduct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417-430.
- Wertlieb, D., Weigel, C., & Feldstein, M. (1987). Stress, social support, and behavior sympto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6*, 204-211.
- Westerman, M. A., & La Luz, E. J. (1995). Marital adjustmen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1*, 453-470.

1차 원고 접수: 2007. 10. 15

수정 원고 접수: 2007. 11. 13

최종 게재 결정: 2007. 11. 14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maternal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Jeong-Mi Lee Yang-Hee Lee

BK21 Group of Multi-cultural Competencies,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conflict, maternal behavior, and social support on school-age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889 children (M=10.68 years, SD= .91) were recruited from nine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Seoul, South Korea. Within the sample there were 464 boys and 425 girls from grades 4-6.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ronbach's alph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using SPSS 12.0 and AMOS 5.0. The results were the following; First,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conflict is negatively related to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Second,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s not mediated significantly by children's perceived maternal behavior. Third,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s mediated by the two factors, maternal behavior and social support. Fourth, maternal behavior is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Fifth, the effect of children's perceived maternal behavior on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s mediated by children's perceived social support. Sixth, children's perceived social support is positively related to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key words: emotional well-be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parental conflict, maternal behavior, social support